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2. 22.(수) 16:30	배포일시	2021. 12. 22.(수) 15:30
담당과장	국고국 국채과장 김이한 (044-215-5130)	담당자	최시훈 사무관 choisihoon@korea.kr

제3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개최 - 2차관 국채 투자기관 대표 등과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등 논의

□ 기획재정부는 12.22일(수) 16:30 서울지방조달청 PPS 홀에서 안도걸 차관 주재로 제3회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를 개최하여,

- ① '21년 국채시장 동향 및 '22년 전망과
- ② '22년 국고채 발행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는 발행당국과 시장참여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19년부터 운영한 고위급 협의체로

- 이번 협의회는 은행·증권·보험 등 8개 투자기관과 KDI·금융연·자본연 등 3개 전문 연구기관이 참석하였다.

< 행사 개요 >

- ◆ 일시/장소 : 12.22.(수), 16:30~17:30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 안건 : ①'21년 국채시장 동향 및 '22년 전망 ②'22년 국고채 발행계획(안)
- ◆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8개 투자기관, 3개 연구기관
 - (기 재 부) 2차관, 국고국장, 국채과장 등
 - (투자기관)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크레디아그리폴, 메트라이프생명, 국민연금
 -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안도걸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도 국채시장은 예년 대비 큰 폭 늘어난 180.5조원의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였다.

- 특히,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우리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40조원 유입되며 국고채의 안정적 발행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시장 불안 확대시에는 세계잉여금, 초과세수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긴급 바이백, 발행량 조절 등 적시 안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안도걸 차관은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내년에도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내년도 607조원 규모의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채 연간 발행한도가 166.0조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설명하고,
- 금년대비 발행량이 축소(△14.5조원)된 점, 외국인·보험사 등의 견조한 수요 등 감안시 내년도 발행물량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였다.
- 다만, 내년도에도 오미크론 변이, 인플레이션 우려,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는만큼,

- ① 내년도 국고채는 시장 수요 및 거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기별·연분별 국고채 발행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 ② 필요시에는 긴급바이백 등 적기 안정조치를 통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㉓ 또한, 국채관리시스템의 신규 구축^(22년 예산반영)을 통해 국고채 발행·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금년 발족한 「국채연구자문단」과의 협업을 통해 중장기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시장참가자들은 금년 국채시장이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당국의 신속한 안정조치 등으로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내년도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내년도 발행계획과 관련하여 금리 인상 등 거시여건과 보험사의 견조한 수요 등 수급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몰별 비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발행전략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만간 '22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 앞으로도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채시장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12.28일(화)에 금년 시장조성용 한도의 잔여분을 활용하여 만기 분산을 위한 국고채 매입을 7,000억원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다.

* 매입 종목 등 자세한 내용은 국채시장 홈페이지(ktb.moef.go.kr)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참고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첨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발언

[인사말씀 및 발행전략협의회 개최 취지]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안도걸입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행전략협의회는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의 수립·발표에 앞서
최근 국채시장의 동향과 내년도 여건 등에 대해
주요 투자기관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를 토대로
보다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국고채 발행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년도 국채시장 평가]

금년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여파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GDP의 경우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21.1/4)한 데 이어
금년 중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고용도
11월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습니다.

* 11월 고용은 2750.3만명으로 위기 이전 고점('20.2월) 대비 0.5만명 부족

국채시장은 이러한 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74.5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한 데 이어
금년에도 예년 대비 큰 폭 증가한 180.5조원을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재정정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가
우리경제의 전조한 펀더멘털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40조원 유입되며
국고채의 안정적 발행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 外人 국고채 순투자(조원) : ('19)+12.0 ('20)+23.3 ('21.1~11월)+37.9

금년 신규 도입한 국고채 2년물, 모집방식 발행 등의 제도는
시장에 안정적으로 착근하며
연물별 수급부담 완화,
국고채전문딜러(PD)의 인수여력 확충 등의 효과를 내는 등
우리 국채시장을 보다 두텁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대내외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국채시장 불안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세계잉여금, 초과세수 등 정부의 가용재원을 활용한
긴급 바이백, 발행물량 축소 등
적기 시장안정조치로 시장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국채시장 여건 및 발행계획]

정부는 보다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07.7조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166.0조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발행량 대비 14.5조원이 줄어들었고,
외국인·보험사 등의 전조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금년 대비 수급상의 어려움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인플레이션 우려, 대내외 통화정책 전환의 본격화 등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은
시장 수요 및 거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기별·연물별 국고채 발행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필요시에는 긴급바이백 등 적기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채관리시스템의 신규 구축^(22년 예산 반영)을 통해
국고채의 발행·관리를 보다 체계화 하는 한편,
금년 발족한 「국채연구자문단」과의 협업을 통해
국고채 발행전략을 보다 정교화 하고,
국채시장 중장기 제도 개선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발행전략협의회 논의주제]

이제 곧 다사다난 했던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가 가고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시작됩니다.

금년 우리 경제가 우보전진(牛步前進)의 자세로
소처럼 묵묵히 한걸음씩 위기를 지나왔다면,
내년은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웅비하는
호보당당(虎步堂堂)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채시장도 이 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합니다.

오늘 발행전략협의회에서는

- ① ‘21년 국채시장 동향 및 ’22년 전망,
- ②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안) 안건 설명을 듣고

내년도 국채시장 여건과 국고채 발행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기대합니다.

특히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